

민주 “野, 공무원 피살로 북풍 정치 말라”

MB·朴 정부, 박왕자 피격·목함 지뢰 폭발 때 남·북 협력 강조 '여·야 입장 따라 두얼굴' 지적...북엔 진상 규명·대화 재개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공동조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진상 규명에 미흡한 점이 남았다. 북한은 진상 규명에 협력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라”면서 “마치 건수 하나 쟁했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정할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근거와 일관성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2008년 박왕자 피격 사건과 2015년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북 협력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

며 “여당 때와 야당 때가 너무 다른 국민의 힘의 두 얼굴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하는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진상 규명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남북공동조사를 수용하여 신속한 진상 규명에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군 통신선 복구 등 여러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도를 넘은 무차별적인 정쟁이 사건을 더 비극적으로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야당은 이번 사

건을 빌미 삼아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마치 건수 하나 쟁겠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정할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야당은 국방위, 정보위에서 월북 정황에 동의하면서 굳이 월북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무엇이나”라며 “정쟁의 도구를 삼기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정외대 앞 1인 시위 등 장외투쟁과 정치공세로 남북갈등을 부추기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한과의 갈등도 고조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그 옛날 북풍 정치를 버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일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보수 야당이 숨을 거두기 직적이었던 냉전 수구적 의식을 되살리려 애쓰

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응이 북한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 ‘굴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재발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볼 때는 사과 처벌 보이는 절충안이라고 해달라’고 구걸하다가 북한이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것야말로 진짜 굴종”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TBS 라디오에서 우리 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다”며 “1초, 1시간 단위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북측 해상 이후로 넘어간)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추미애·아들 ‘휴가연장 의혹’ 무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게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대장 B씨를 혐의 없이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

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중앙부처 여성 관리자 비율 20% 못미쳐”

정부 부처 전체 관리직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그런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국회의원은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임용 현황과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여성 장관 비율은 33.3%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10년 12.5%였던 여성장관 비율이 10년 만에 2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신규 임용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관리직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20% 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18개 부 및 일부 처·청? 위원회 포함 44개 기관, 2019년 기준)는 2016년 13.5%에서 2019년 18%로 4.5%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19년 5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평균 비율이 37.5%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사회의 유리천장이 임명직인 장관에 비해 더 공고한 현실을 돌아보고 더욱 진전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희재 “공공임대 자살·고독사 증가, 관심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28일 LH 공공 임대주택 내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고와 고독사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에, 삶의 어려움과 취약층 복지 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듯,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살사고는 66건, 고독사는 43건으로, 전년 1년 동안 발생한 건보다 각 10건씩 증가했다.

LH측은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LH 무지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는 하지만 입주인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LH의 노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LH가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그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 도의원 당선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보라미(사진) 전남도원의원이 당선됐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8일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6기

지도부 선출 선거를 통해 이보라미 전남도원의이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최현주 전남도원의과 김도담 전남도당 청년학생위원장이 당선됐다. 전국에서 53명 뽑는 전국위원회는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김도담 청년학생위원장이 선출됐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에는 곡성·구례군 위원장에 박승두 중앙당 농어민위원장, 목포시 위원장에 백동주 목포시의원, 순천시 위원장에 김미애 순천시의원이 당선됐다. 영암군 위원장에 김석원 현 영암군위원장, 해남군위원회 위원장에 오영택 현 해남군위원장이 각각 연임에 성공했다.

이보라미 전남도당위원장은 “현장 당원들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제도화되는데 힘을 쏟겠다”며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그 힘을 바탕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추석 앞 호남 찾은 김종인 “수해피해 적극 지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오일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막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례 두번째 방문...민심 청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28일 구례를 방문, 수해 복구 현장을 살피고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구례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수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안다”며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집진강댐 수위 조절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 피해가 많았던 것 같다”고 언급한 뒤 “중앙정부는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위원장 일행은 김영록 전남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등과 만나 수해 피해 규모와 현재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구례 방문은 김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지난달 10일 막대한 홍수 피해를 당한 호남으로 내려가 복구 상황을 살피고 이재민을 위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위원장 구례 방문에 동행한 한 인사는 “첫번째 방문에는 일부 주민의 항의도 있었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았다”며 “국민의힘에서 도와달라는 주민 목소리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이 추석에 앞두고 일정을 쪼개 다시 구례를 방문한 것은 당 차원의 호남 민심 챙기기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을 보여 주려는 뜻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에는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이 동행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 노안 백내장
- 스마일 라식·라섹
- 녹내장
-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